

**애호, 정보,
불확정, 이미지
(2019. 08)**

나는 손쉽게 정보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이 특정 이미지를 애호하는 기준을 궁금해한다. 이 글에서 언급되는 ‘이미지’라는 단어는 상상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 같은 것이 아닌 기계장치를 통해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산물을 뜻한다. ‘애호’라는 단어는 특정 대상을 평가하거나 살피는 일에 정확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정서적 동요에 의해 깊게 마음을 쓰는 불가사의한 작용을 가리킨다.

이미지의 생산과 분배는 현실 인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내가 궁금해하는 이미지와 애호의 교차점은 예술 내부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조형적 실체가 아닌 현대 문화의 패러다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이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지만 전형성을 띠고, 주변 세계가 받아야 할 시선을 대중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는 개인이 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종의 난독증을 조장할 수 있어 문제적일 수 있다.

이 호기심은 2015년과 2016년에 거친 개인적인 경험과도 연결된다. 첫 번째는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와 2015년 11월 14일에 일어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연결된다. 나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미지들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목도하며 이미지 재생산과 소비와 연결된 개인의 믿음, 정서적 거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재생산된 두 사건은 대중의 사건에 대한 인식을 ‘이미지의 재생산’을 통해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로는 2016년 예루살렘 방문 경험과 연관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지역이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도시다. 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대하여 실체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는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된 분쟁과 폭력의 이미지로 형성되었는데, 공포감의 실체가 정확한 통계나 분석을 통한 인지나 경험 이전에 나에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장소를 방문하며 관찰한 풍경은 미디어 속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사소했고, 이 경험은 나로 하여금 이미지의 ‘객관성(다큐멘터리성)과 애호’ 혹은 ‘이미지 속 정동’, ‘이미지와 진실’ 등의 이슈를 살펴보게 했다.